

울산어문논집 제15집 (2001.11.30.) pp.321~352.  
울산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부

## 윤선도 시조문학의 연구사 검토

이 노 형\*

### 1. 머리말

고전문학 연구사를 들이켜 보면 거기에는 영역에 따라 행복한 합의에 이른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 한 쪽도 있다. 연구사적 쟁점들은 작품론을 비롯하여 작가론의 영역 또는 그 연구시각과 평가에 이르기까지 폭넓고도 다양한 범위에서 나타난다. 고전문학의 경우 이러한 쟁점들에 대한 정리 및 검토 작업은 총괄적이고 선구적인 차원에서 한 차례 이루 어진 적이 있다.<sup>1)</sup>

17세기 국어시가사를 빛낸 고산 윤선도의 시조문학의 경우 얼핏 쟁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기 쉽다. 고산시조의 일반적 특징이라 하면 흔히 최대한의 우리말 사용, 국어의 아름답고 감각적인 시적 활용 등의 뛰어난 형식성, 그리고 강호자연을 소재로 하여 빛어낸 아름다운 서정성 등을 떠올리게 된다.<sup>2)</sup> 시적 소재나 정서의 측면에서 볼 때 예외의 작품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sup>3)</sup> 그의 대부분의 시조작품이 자연적 소재나 생활, 또 자연

---

\* 울산대학교 국어국문학부 부교수

1) 장덕순, 한국 문학사의 쟁점, 집문당, 1986이 그것이다.

2) 조윤제, 국문학사, 동방문화사, 1949, 221-223쪽 및 조동일, 국문학통사 2권, 지식산업사, 1997, 295-297쪽을 참조할 수 있다.

적 서정을 지향하고 있어서 적어도 조선시대의 시조사의 경우에서 그는 누구보다도 ‘자연시인’의 이름으로<sup>4)</sup> 기억되어도 좋을 인물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고산 연구의 깊이를 들여다 보면 쟁점이 될만한 부분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다. 가령 고산시조의 자연을 대상으로 한 서정세계에 담긴 본질을 두고 그것을 ‘순수한’ 자연서정 차원에서 보고자 하는 논의가 있을 수 있다면,<sup>5)</sup> 서정성의 본질을 자연적 서정과 더불어 ‘현실적’ 서정이라고 하는 이중적 지향의 차원에서 보고자 하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sup>6)</sup>

고산시조 연구에 나타나는 이러저러한 이질적 견해들은 접근방법이나 연구시각의 차이에서 일어난 것이라 할 수가 있다. 이를테면 순수 서정으로 해석하는 경우는 접근방법상에서 작품론에 비중을 두거나 혹은 윤선도의 시조사적 차원에서의 변별성을 중시한 데서 나온 것이라 한다면, 그에 대해 현실적 속성까지 지적하는 견해는 작품론과 작가론을 함께 취하는 충체적인 입론에 선 데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sup>7)</sup>

한편 연구시각상의 차이는 연구자가 딛고 선 연구이념의 차이를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이념적 차이에 따라 그 연구결과는 사뭇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다. 연구시각의 차이는 모든 분야에서 그렇듯이 아무래도 분단체제라고 하는 남북 간의 이념적 차이에 닿아 있는 것이다. 우리 문학사 일반을 대상으로 하여 그 이념적 차이로 인한 남북간의 인식 차이에 대해서는 선행적 연구가 이미 한 차례 이루어졌다.<sup>8)</sup>

고산시조에 대한 북한의 연구동향도 한 차례 검토되었다. 곧 맑스레닌주의 원칙에 입각한 “조선문학통사”(1959년)와, 주체사상에 입각한 “조선

3) 성기옥 교수는 고산시조 중에서 “초연곡”과 “파연곡” 등의 일부 작품을, 자연과 무관하게 사회적 관심만을 다루거나 혹은 자연이 별다른 의의를 지니지 못하는 작품들로 규정하고 있다. 성기옥, 고산 시가에 나타난 자연인식의 기본 틀, 고산연구회, 고산연구 창간호, 1987, 214쪽 참조.

4) 조윤제, 앞의 책, 223-224쪽 참조.

5) 조동일, 위의 책, 296쪽 참조.

6) 성기옥, 앞의 논문, 213쪽 참조.

7) 조동일, 성기옥 두 분의 견해가 각각 앞뒤의 경우에 해당된다.

8) 민족문학사연구소, 북한의 우리문학사 인식, 창작과 비평사, 1991 참조.

문학사"(1977년) 및 "조선문학사1"(1982)에 실린 북한 쪽의 연구를 비판적 관점에서 각각 비교 논의한 것이 그것이다.<sup>9)</sup> 비교 결과 고산시조의 기본 지향에 있어서 조선문학통사는 인민성을, 그리고 두 문학사는 애국주의를 강조하고 있는데, 후자인 두 문학사의 해석관점이 타당한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두 문학사의 그에 대한 애국주의적 해석 및 은밀적 해석은 피상적일 수 있는 것으로 비판적 단서를 붙여 두고 있다.

기존연구는 이조전기 문학 일반을 다루는 포괄적인 작업의 한 부분으로 윤선도를 다루면서도, 북이 보여 준 시기별 해석 관점과 내용을 정확히 지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선행연구에서는 이후에 출판된 문학사라 할 "조선문학사"(1991년)가 논의대상에서 빠져 있어, 이후 문학사에 나타나는 또 다른 관점의 변모양상은 실려 있지 않다. 이를테면 91년판 문학사에서 고산시조의 기본 지향은 인민성과 애국주의를 두루 아우르면서 그와 동시에 제한성을 지닌 것으로 논의하고 있는데, 여기서 북의 이러한 변모양상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sup>10)</sup> 그리고 북쪽의 애국주의적 관점과 은밀적 관점 등에 대해서도 평가에 앞서 그 세부를 좀더 깊이 들여다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남한의 경우 고산시조의 연구사는 그의 유명세만큼이나 술한 연구물을 축적하고 있다.<sup>11)</sup> 이 글은 연구사에 대한 자세한 검토를 피하고 그 중 이

9) 민족문학연구소, 위의 책, 제 96, 222-223쪽을 참조.

10) 90년대 이전과 이후의 출판물 간의 편차는 고산시조의 인민성과 관련한 서술에서도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곧 "어부사시사"의 서정적 주인공에 대한 해석과 평가의 경우, 1977년판 조선문학사는 한 마디로 '근로하는 인민의 정신세계와는 인연이 없다.'고 하였으나, 1992년판 조선문학사는 '인민의 생활과 그들의 반봉건적 지향을 진실하게 반영할 수 없었다.'고 하면서도 그와 동시에 '봉건통치자들의 극악한 반인민적 행위들을 좋게 보지 않고 그것을 멀리 하려고 한 지향과 관련'된 것이며 '인민의 입말을 시어의 기본으로' 하는 것이라 하여 그 인민적 성향을 함께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편차에 대해서는,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조선문학사(고대중세편), 과학백과사전 출판소, 1977, 371쪽과, 김하명, 조선문학사(17세기), 사회과학출판사, 1992, 156-157쪽을 참조할 수 있다.

11) 고산시조 및 고산문학 일반에 대한 연구사의 전체목록은 정운채, 윤선도-연군지정

글의 논의에 부합하는 뚜렷한 논저를 선택하여 연구를 진행키로 한다. 그래서 고산시조연구의 대표적인 입장들을 서로 비교하여 그 동질적인 측면과 이질적인 측면을 찾아내고 나아가서 이질적인 측면의 시각적 배경을 함께 따져 보기로 하겠다. 물론 여기에는 북한의 연구사까지 포함된다고 하겠다.

이 연구는 고산시조 연구사의 흐름과 수준을 검토해보는 동시에 나아가 고전문학 일반의 해석에 있어서 좀더 발전적인 길을 찾고자 하는 고민에서 비롯된 것이다.

## 2. 남한의 경우

남한의 경우 고산시조에 대한 견해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을 듯 하다. 그렇게 가르는 것대를 고산시조의 내용적 본질이라 할 강호자연의 서정이 지난 속성에서 찾을 수 있다. 곧 고산의 서정세계가 이념 혹은 현실을 완전히 벗어난 것인가, 아니면 이념이나 현실에 닿아 있는 것인가 하는 속성에서 논자에 따라 견해가 다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본론에 앞서 이 두 가지 견해들 사이를 관통하는 합의점을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고산의 서정세계를 순수한 자연서정으로만 보든 아니면 현실지향적인 자연서정으로 보든 그 둘 사이에는 일정한 공유지점이 놓여 있는 것이다. 그런 합의점에 대하여 먼저 밝혀 두자면 그것은 자연서정성 혹은 강호서정성이라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고산시가의 특징에 대한 두 가지 해석결과들, 곧 '순수한 자연서정'과 '현실지향적인 자연서정'이라고 하는 각각의 입론에서 그 수식어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들이 서로간의 공통분모가 되는 셈이다.

자연서정이라고 하는 공유지점을 인정할 경우,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현실지향적 자연서정이라고 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순수한 자연서

---

과 이념의 세계, 건국대학교 출판부, 1995, 136-141쪽에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다.

정은 그 자체가 이미 서정적 지향에 자연 이외의 그 아무 것도 개입하지 않는 자연서정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산시조에서 현실지향적 자연서정성을 주목하는 견해들에도 그 세부에는 다양한 견해들이 있을 수 있다. 이를테면 현실지향적 자연서정성에 대하여 그것을 당쟁이라고 하는 정치현실과 관련시키는 견해, 아니면 천인합일이라고 하는 유가적 이념의 측면에서 보고자 하는 견해, 혹은 연군이나 충군의 이념적 성향과 관련하여 해석하고자 하는 견해들이 그것이다. 이러한 입론들 중에서 대표적인 경우 몇 가지를 들어 아래에서 그 현실적 지향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함께 무엇보다도 그 속에 밀바탕을 이루는 공유지점 곧 자연서정성을 확인해 보기로 한다.

그 첫 번째 예로서 고산 윤선도의 강호가도에서 그 현실적 배경을 구체화한 최진원의 논의를 들 수 있다.<sup>12)</sup> 최진원의 경우 고산시조가 지향하는 강호가도는 그 생산집단인 사대부들의 출처관이라 할 명철보신(明哲保身) 현자피세(賢者避世)의 현실적 배경이라 할 당쟁하의 현실에서 유래한 것이 된다. 그러기에 고산의 강호서정은 현실지향적 서정에 결합된 것이라 하겠다. 조윤제의 강호가도론 중에서 그의 지론이라 할 자연시적 특성에 대한 견해보다는 그의 현실적 이념적 특성에 대한 언급 분분을 더욱 주목하여 그를 발전시킨 데서 나온 견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진원의 고산시조에 대한 현실적 견해 속에도 전제가 되고 있는 서정성은 현실성 이전의 자연서정성이라 할 수가 있다. 물론 고산시조의 최종의 주제적 지향점은 오우가에서처럼 이념적 규범이라 할 수가 있고, 오히려 오우가를 뺀 대부분의 작품들이 ‘좌절을 짊어지고 끝끝내 현실에 부딪혀’ 나가고자 한 성향을 지닌 것이다.<sup>13)</sup> 하지만 이것은 고산의 이중적 지향 중에서 현실적 측면만을 주목할 때에 가능한 논리가 된다. 고산시조에서 서정성, 곧 ‘산수의 낙은 일차성으로는, 현실에 대한 무심’이며, 또한 그러한 순수한 자연서정은 ‘무심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연과

12) 최진원, 국문학과 자연,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81의 1-115쪽에 걸쳐 진행된 강호 가도연구가 그것이다.

13) 최진원, 앞의 책, 42쪽 참조.

현실 사이에 거리를' 두면서 이루어진다고 하듯이 고산의 일차적 관심은 어떻게든 인간으로부터 '머도록' 더욱 좋은 자연세계인 것이다.<sup>14)</sup> 그것은 곧 강호귀의하여 얻게 된 '강호우류(江湖優遊)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자연서정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다.<sup>15)</sup>

그러니까 고산시조의 서정은 비록 정치현실과 강하게 연결된 이념성을 띤 것이긴 하나 그와 동시에 거기에는 산수자연을 지향하는 자연서정성을 그 일차적 속성으로 지닌 것이라 하겠다.<sup>16)</sup> 곧 고산시조에서 이념성을 찾는 경우에도 자연서정은 뺄 수 없는 그 전제조건이이라고 하겠다.

다음으로 성기옥의 견해를 들어볼 수 있다. 그도 고산시조의 서정세계를 현실지향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 경우에 든다. 물론 성기옥의 현실지향성이란 개념은 최진원의 경우와 다른 것으로 현존하는 현실계를 말하는 것이 아닌 이상적인 현실과 자연을 포괄하는 유가의 천인합일의 세계라고 하는 고차원의 개념이다. 그래서 현실지향성이란 말의 명명방식도 염밀히 말하자면 천인합일적 지향성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논의의 편의상 그것을 현실지향이라는 용어로 바꾸어 사용하기로 한다.<sup>17)</sup>

고산시조의 궁극적 지향점을 천일합일적 현실에 둔 것으로 보는 성기옥도 그렇다고 하여 그 자연서정성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의 진술 하나를 예로 들어 보자.

자연 속에서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유형에 공통적으로 흐르는 시의 기본정조는 자연과의 조화를 통해 얻는 기쁨의 정서다. - <어부사시사>류 역시 사회가 개입되기는 하지만 시의 주된 정조가 자연과의 조화에서 얻는 기쁨임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sup>18)</sup>

14) 최진원, 앞의 책, 38-39쪽 참조.

15) 최진원, 앞의 책, 10-15쪽 참조.

16) 최진원, 앞의 책, 41쪽 참조.

17) 본문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성기옥, 앞의 논문, 245-246쪽 등을 참조하면 된다.

18) 성기옥, 앞의 논문, 227쪽 인용.

인용문은 고산시조 일반에 나타나는 정조가 사회성을 띠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자연서정성의 바탕을 지닌 것임을 인정하고 있다.

물론 고산에 대한 그의 연구방향은 자연지향적인 측면보다는 천인합일적 현실지향 쪽에 놓여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성기옥의 견해에 따르자면, 그의 시조 대부분이 자연적 소재를 취하고 있으나 오히려 관심사의 영역에서 보아 사회적 관심사에 더욱 기울어져 있으며, 또한 소재에서도 75수 중 12수 정도는 사회적 소재에 치중하고 있고 완전히 사회적 관심만을 반영한 것이 그 중 4수라고 하고 있어 고산에게 자연시인이란 이름을 붙이는 것이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 적어도 관심사의 측면에서 볼 때 그러하다. 하지만 관심사의 비중성이 아닌 포괄성을 잣대로 할 경우 성기옥 교수의 논문에서도 대부분의 작품들이 자연적 관심사까지를 아우르고 있는 것으로 인식함에는 변함이 없다. 12수 중에서도 4수 정도를 빼고는 대부분의 작품들이 관심사 측면에서도 어떤 수준에서든 자연과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소재 면에서도 그러하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측면에서는 역시 고산은 자연시인이 되는 셈이다.<sup>19)</sup>

곧 최진원, 성기옥 두 분의 견해도 현실지향적 서정을 찾으면서도 그와 동시에 자연서정을 찾고 있다는 점에서 이른바 순수한 자연서정을 주장하는 견해와 서로 공유지점을 얻고 있는 견해라 할 수 있다.

북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북한도 고산시조를 ‘단순한 음풍영월이 아니였다.’라고 한 데서 비치고 있듯이 고산의 현실지향적 측면을, 이를테면 작품에 따라서는 ‘나라를 위한 절절한 충정’이나 ‘강호취미의 한계를 벗어나서 농사짓는 집의 부지런한 늙은이의 감정세계’ 등의 현실참여적 측면을 지적하고 있다.<sup>20)</sup>

그와 동시에 북한은 강호서정적 측면까지 지적한다. 곧 고산시조 일반에는 ‘적극적인 사회정치적 활동을 피하고 전원에서 깨끗하고 한적하게만 살아가려고’ 하는 강호적 지향, “산중신곡, 산중속신곡”에 나타나는 ‘산수

19) 본문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성기옥, 앞의 논문, 213, 214쪽에 나와 있다.

20) 김하명, 조선문학사(17세기), 사회과학출판사, 1992. 143, 146, 148쪽 참조.

속에 묻혀 깨끗이 살아가는 기쁨과 자기 신념', 또는 오우가의 '자연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깊은 리해'가 반영되어 있다고 한 것이 그것이다.<sup>21)</sup> 또 "어부사시사"의 서정세계를 '산수자연 속에서 세상을 멀리하고 한적하게 살아가며 자신의 생활체험을 읊은' 것으로 설명하기도 한다.<sup>22)</sup>

이와 같이 고산시조의 가장 중요한 특질에 대한 연구사적 견해는 다양하지만, 그러한 이질적 견해들 속에는 하나의 합의점이 관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곧 고산의 자연예찬에 대하여 그것을 탈이념적으로 보든 현실적 혹은 이념적으로 보든 거기에는 자연을 대상으로 하여 자연 혹은 자연생활을 예찬하고 즐기는 강호가도 곧 자연서정이 밑바탕을 이룬다는 인식에는 서로 일치된 견해를 보인다고 하겠다.

물론 고산의 자연서정은 논자에 따라 그 세부의 내용에서까지 동일한 것은 아니라 하겠다. 그러한 이질성은 크게 보아 자연서정의 속성을 탈이념 혹은 탈현실의 순수로 보느냐 아니면 이념 혹은 현실과 연결된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 갈라지는 것이다. 나아가서 그것은 고산의 시조에서 특히 후자 쪽, 곧 현실지향적 속성까지 밝히고자 하는 견해들 사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다음의 제 1절에서는 전자의 견해들을, 제 2절에서는 후자의 견해들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 (1) 순수한 자연서정론

고산시조의 자연서정을 이념과 현실에서 완전히 벗어난 순수서정으로 이해하는 연구사적 첫 경우로, 시조문학의 주류적 특성이라 할 강호가도를 처음으로 밝힌 조윤제의 견해를 들어 볼 수 있다.

그는 산수간에 고요히 파무쳐 그 자연미를 옹시하고 때로 그 미율(美律)에 맞추어 시가를 짊어 자연과 상부상침하였던 것이나, 고산은 또 음악을 좋아하야 - 그는 산수간에 살면서 객관적으로 산수를 즐겼는 것이 아니라 자

21) 김하명, 위의 책, 143, 144, 148쪽 참조.

22) 김하명, 위의 책, 152쪽 참조.

연의 참된 미를 그 중에서 발견하고 그에 도취해야, 그 미의 움증임을 시 흑은 악에 그려내어 자기와 자연과 시악이 완전일체됨을 얻었다.<sup>23)</sup>

조윤제의 견해에서 고산의 삶과 시가는 현실의 번거로운 속세에서 벗어나 완전히 자연과 자연미에 빠져 버린 것이 된다. 이런 시각에서 고산시조가 보이는 자연의 아름다움은 현실이 전혀 개입할 수 없는 도취적 서정이랄 수 있다. 물론 그의 견해는 일정한 유보적 자세를 보이고도 있다. 이를테면 고산은 ‘표표연 유세독립(遺世獨立)하야 우화등선(羽化登仙)’하는 뜻을 갖게 하지마는 부자군신의 윤리에 벗어나게 하지 않게<sup>24)</sup> 한다 와 같은 언급들이 그것이다. 그러나 조윤제에게 있어 고산시가가 지닌 특성에 대한 근본시각은 아무래도 현실적 측면보다는 자연적 서정을 지향한 것에 놓여 있다. 곧 ‘고산의 시조는 곧 자연의 소리요, 자연미의 율동’이며, 교훈적 시조라 볼 수도 있는 “오우가”마저도 ‘생명이 약동하는 자연’ 그대로를 읊고 있듯이, 윤선도는 조선조 시조문학사에서 최고봉의 ‘자연시인’으로 규정될 수 있는 것이다.<sup>25)</sup>

조동일의 경우는 고산시가의 서정적 본질을 거의 자연적 서정에서 찾고자 한다.

모두 75수나 되는 시조를 지으면서, 관심을 현실에서 강호로 돌렸다. 전라도 해남의 자기 마을에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데 그치지 않고, 바다 건너 보길도에다 호화로운 정원을 꾸며놓기까지 하고, 예사 사대부로서는 바랄 수 없는 풍류를 마음껏 즐기면서 - 경치를 그리고 이치를 찾는 데는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서 흥취를 최대한 확대시킨 특징이 있다. 마음을 바르게 하는 도리를 찾는다든가 살아가는 괴로움을 토로한다든가 하는 주제의식에 벗어나 극도로 세련된 풍류의 세계를 미묘하게 표현하기만 하는, 후대에 순수시라고 하는 것과 일치하는 경지에 이르렀다.<sup>26)</sup>

23) 조윤제, 앞의 책, 220-221쪽 인용.

24) 조윤제, 위의 책, 220쪽 참조.

25) 조윤제, 위의 책, 223-224쪽 참조.

26) 조동일, 앞의 책, 296쪽 인용.

작품의 특징을 순수서정에서 찾고자 하는 이러한 시각은 언뜻 교훈시조에 가까울 “오우가” 여섯 편의 주제 성격을 밝히는 데에서 그 절정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곧 오우가를 교훈시조가 아닌 차라리 순수시에 가까운 작품으로 보고자 한 견해가 그것이다. 이를테면 오우가의 주제를 ‘교훈시조처럼 보이지만, 그런 자연물의 모습을 들어 사람의 도리를 말하려고 한 것과는 반대로 사람의 도리를 수단으로 삼아 자연물을 예찬하는 목적을 달성하려 했다고 할 수 있다’고 한 경우가 그것이다.<sup>27)</sup>

개론서 차원의 언급이긴 하나, 그의 시세계를 완벽한 탈속적 순수서정으로 이해하는 또 하나의 예를 들어 볼 수 있다. 곧 어부사시사는 ‘세속의 명리와 갈등으로부터 초탈하여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며 살아가는 처사적 삶의 전형’을 노래한다고 한 예가 그것이다.<sup>28)</sup>

따라서 이러한 견해들을 따를 때 고산시조에 나타나는 대부분의 강호서정은 탈이념적인 순수한 서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2) 현실지향적 자연서정론

고산시조의 서정세계에서 현실지향적 서정까지를 주목하는 견해들은 크게 보아 두 유형으로 나뉠 수 있는 것이라고 앞서 말했다. 하지만 견해들의 깊이를 들여다 보면 거기에는 두 방향이 아니라 세 방향의 이질적 견해들로 나타난다. 그 세 번째의 견해는 북한 쪽의 견해인데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 장으로 넘기기로 한다. 아래에서는 우선 두 가지의 현실지향적인 견해에 대하여 그 대표적인 논의들을 중심으로 살펴 보기로 하겠다.

첫 번째 예로 조운제의 강호가도론을 더욱 발전시킨 최진원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이 장의 서두에서 밝혔듯이 그는 고산의 서정세계의 바탕을 일차적으로는 자연서정 자체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그는 이차적 차원에서는 자연서정이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지향적 서정과 함께 결합되어

---

27) 조동일, 앞의 책, 296쪽.

28) 김홍규, 한국문학의 이해, 민음사, 1986, 47쪽 참조.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다음의 예문에서 그를 확인하도록 하자.

‘며도록 더욱 뜨타’는 말 뿐이지, 실제에 있어서는 현실을 멀리할 수 없다. 무심은 표방에만 그쳤고, 따라서 좌절은 풀어질 수 없다. 현실을 멀리하고자 하면 할수록 좌절은 이념에 부딪혀 더욱 절박해질 뿐이다. – 그러므로 무심은 굳이 말한다면 ‘좌절을 풀어진 셈으로 하여 둔다’의 것이다. 그것은 독선적(獨善的) 자위다. 그러므로 산수의 낙의 일차성인 무심만으로서는 좌절은 풀어질 수 없다. 이에 고산은 산수의 낙의 고차성을 찾았다. 그것이 ‘자연의 규범성’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뒤에서 말하겠거니와, 여기서 간단히 언급한다면, 고산은 오우가의 수·석·송·죽·월에서 부단·불변·불굴·불욕·불언의 규범성을 찾았는데, 그것은 그런 규범성으로써 좌절을 풀고자 한 때문이다.<sup>29)</sup>

말하자면 그는 고산의 삶과 시에 반영된 강호산수 속의 여유롭고 조화로운 즐거움이 순수한 즐거움 자체가 아님을 말하고 있다. 치인의 의무를 진 사대부신분의 고산은 귀거래의 강호를 지향하면서도 그와 동시에 경국제민(經國濟民)의 현실도 의식해야 했기에, 귀거래의 즐거움은 어디까지나 명분일 뿐이고 실제에서는 정치현실 속의 ‘번언(煩言)과 비방(誹謗)’으로 고민에 젖어 있는 속성을 띤 것이다.<sup>30)</sup>

고산에게 오우가 여섯 편은 그러한 현실적 고민과 좌절을 극복하기 위한 문학적 돌파구인 셈이다. 현실적 사회적 규범이라 할 부단, 불굴, 불욕 등의 윤리이념이 현실 속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어, 그것을 강호자연 속에서 찾아냄으로써 마침내 그는 관념 속에서나마 좌절과 고민을 풀게 되는 것이다.<sup>31)</sup> 그렇다고 하여 그가 현실지향적인 성향을 떠난 것은 아니라 하겠다. 왜냐하면 오우가 속의 규범도 어디까지나 사회적 규범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최진원은 고산의 강호서정의 속성을 순수한 서정세계가 아니라 현실지향적 속성, 곧 혼란한 정치현실에서 야기된 좌절과 고민의 속성을

29) 최진원, 앞의 책, 42쪽 인용.

30) 최진원, 앞의 책, 41쪽 참조.

31) 최진원, 앞의 책, 65쪽 참조.

띤 서정세계에서 찾는다고 하겠다.

성기옥은 최진원의 견해를 더욱 구체화하면서, 나아가 후자와 사뭇 다른 차원에서 고산의 현실지향적 강호서정을 논의한다. 다음의 예문을 보기로 하자.

자연 속에서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유형에 공통적으로 흐르는 시의 기본정조는 자연과의 조화를 통해 얻는 기쁨의 정서다. - 그러나 이 문맥에서 중요한 것은 자연을 노래하는 고산의 시가가 기쁨의 노래라는 사실 자체가 아니고 그러한 기쁨이 풍기는 감정의 질이다. - 기쁨이 어딘가 공소한 느낌을 준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 결과적으로 자연을 노래하는 고산의 시가는 모두가 부정적 현실과의 대립에서만이 가능한 상대적 기쁨을 구가하는 노래할 할 수 있다.<sup>32)</sup>

성기옥도 고산의 서정세계 일반의 주된 정조 면에서 자연과의 조화를 통해 얻는 기쁨으로 보고 있어 최진원의 견해와 비슷하다. 또한 그러한 기쁨이 자족적인 것이 아니고 부정적 현실을 의식한 공소한 속성을 지닌 상대적 차원의 기쁨, 곧 현실이 개입된 일종의 현실지향적 정서로 본 것도 최진원의 현실적 좌절 인식에 거의 일치한다.

다만 성기옥은 최진원에 비해 고산의 그러한 시세계를 더욱 구체화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고산시조 전체를 대상으로 삼아서 그 표상되는 수준에 따라 작품군을 4개 유형으로 유형화 한 것이 그것이다. 이를테면, 각각의 작품이 지향하는 관심사의 비중이 작품 자체만으로 볼 때 자연영역과 사회영역 중에서 어느 쪽에 더 놓여 있는가, 혹은 서로 복합성을 띠는가에 따라 4개 유형을 구분하고, 이 4개 유형 중에서 자연영역과 사회영역에 대한 관심사를 가장 극단으로 보여 주는 유형은 “몽천요”류와 “하우요”류의 작품군이라 했다. 몽천요류는 사회적 관심사를, 하우요류는 자연적 관심사를 집중적으로 보여 주는 유형들인 것이다.<sup>33)</sup>

---

32) 성기옥, 앞의 논문, 227쪽 인용.

33) 성기옥, 앞의 논문, 211-213쪽 참조.

하지만 이 유형들이 관심사의 비중을 어느 영역에 두든 간에 부정적인 사회현실을 대립적으로 의식하고 있으며 그와 동시에 이상적인 사회를 갈구하는 감정적 지향을 보인다고 한다. 그것은 자연 자체와의 조화가 완성된 절정의 순간을 노래한 듯한 하우요류들의 기쁨마저도 고산시조 일반 및 작가론적 삶과 연결하여 해석하면 자족적이라기 보다는 여전히 상대적인 성격이 강하다. “오우가”에 대해서도 최진원 교수가 관념 속의 규범을 통해 좌절을 푸는 노래라고 한 것을 두고, 성기옥 교수는 노래의 그려한 관념적 한계를 더욱 명확히 하여 상대적이거나 폐쇄적 차원의 기쁨을 담은 노래로 보고 있다.<sup>34)</sup>

성기옥은 고산의 현실지향적 특성을 설명하는 이론적 잣대로서, 유가의 일반철학적 원리라고 하는 좀더 포괄적인 틀인 ‘천인합일의 원리’에서 찾고 있는데, 이 점도 최진원이 유가의 경국제민의 정치철학적 원리에서 찾는 것과 상당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이른바 고산의 자연인식의 틀에서는 진정한 자연과의 조화란 사회와의 조화와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논리가 밑바닥에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른바 천인합일(天人合一)이라고 하는 유가의 전통적인 자연인식 원리가 그것이다. 따라서 고산의 서정적 본질에 대한 해석도 그런 각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sup>35)</sup>

한편 천인합일적 틀에서 말하는 사회는 부정적인 현실사회가 아닌 이상적인 사회, 곧 왕도적 질서가 구현되는 이상적인 사회를 뜻한다고 할 수 있다.<sup>36)</sup> 그러니까 고산에게 있어 부정적인 현실은 줄곧 대립 의식되어야 하는 사회이고, 이상적인 사회는 개인이나 자연과 서로 하나로 화합된 사회인 것이다. 고산의 시세계에 나타나는 기쁨의 공소한 상대성은 자연과 사회가 통합된 천인합일의 질서를 방해하는 부정적인 현실사회 때문에 일어난 셈이 된다.

따라서 고산의 자연서정은 천인합일적 조화의 실현을 갈구하는 간절한 염원을 나타낸 것이며, 그의 시는 방황과 탐색의 안간힘이라고 할 수 있다.<sup>37)</sup>

34) 성기옥, 앞의 논문, 228~219쪽과, 최진원, 앞의 책, 65쪽을 참조.

35) 성기옥, 앞의 논문, 230~231쪽 참조.

36) 성기옥, 앞의 논문, 215쪽 참조.

이런 점에서 성기옥의 주제해석은 최진원의 경우에 비해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인다고 하겠다. 고산의 자연미 곧 자연적 서정세계에 대해 최진원이 거기에는 ‘좌절적’ 정서도 있지만 마침내 좌절에서 ‘풀어진’ 정서도 있다고 하면서, 곧 “오우가”가 풀어진 정서를, 나머지의 시조가 좌절적 정서를 보인다고 했기 때문이다.<sup>38)</sup>

이에 비해 성기옥은 최진원의 풀어진 정서까지도 어디까지나 폐쇄적 범위 안의 풀어진 정서 정도로 이해한다. 곧 오우가에 대한 해석에서 최진원이 자연의 규범성을 발견함으로써 관념 속에서나마 좌절을 풀 것이다 하지만, 성기옥은 그러한 규범성을 통해서도 좌절을 풀 것이 아니라고 한다. 후자의 ‘고산은 시를 통해 그가 도달하려 했던 구극의 길을 어느 유형에서도 발견하지 못 했다’고<sup>39)</sup> 한 진술이 그 점을 잘 표현하고 있다.

두 분의 이러한 인식 차이는 근본적으로 두 분의 고산을 해석하는 인식틀이 사뭇 다른 데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전자가 풀어가는 잣대를 자연물에 투영된 현존의 윤리도덕적 규범에 둔 것이라면 후자는 현존의 규범을 비롯하여 모든 인문현상과 자연현상 일체까지를 포괄하는 천인합일의 세계에 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후자의 성기옥은 오우가에서 ‘규범적인 선의 완성을 추구하기 위해 정신화된 자연이란, 존재론적 인식의 과정을 통해 정신화되는 우주적 자연으로서의 의미와 다른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는 것’이라 함으로써,<sup>40)</sup> 자연마저도 현존의 자연이 아닌 우주적 차원의 이상적인 존재로서의 자연임을 주장하는 것이다. 요컨대 현존하는 자연까지도 현실사회와 더불어 고산의 이상세계가 아니라는 점에서 고산의 서정은 폐쇄적 한계 안에서 끊임없는 갈구와 방황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하지만 강호서정의 본질의 세부에 대한 해석에서 서로 이러한 차이가 있더라도, 두 분의 논의는 고산시조의 강호서정이 현실지향적 정서와 결

37) 성기옥, 앞의 논문, 247쪽 참조.

38) 최진원, 앞의 책, 42쪽 참조.

39) 성기옥, 앞의 논문, 247쪽 참조.

40) 성기옥, 앞의 논문, 246쪽 참조.

합된 것이라는 데에서는 일치한다고 할 것이다. 인식틀과 그에 따른 구체적 차원의 해석이 서로 다를 뿐이라 하겠다.

고산의 현실적 성향을 주목한 연구사에는 두 분의 연구 말고도 더 있다. 연구사의 견해들은 서로 접근방법과 연구내용에서 독창성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한결같이 고산의 자연서정이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는 데에는 의의를 달지 않고 있다.<sup>41)</sup>

### 3. 북한의 경우

고산의 현실적 측면을 논의하는 데에 있어서 남한 안의 연구사는 각각의 독창적인 논의를 보이고 있지만 근본 사상에 관련된 연구시각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니라 하겠다. 그것은 접근방법이나 연구대상의 차이와 같은 범주 안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이다. 하지만 북의 연구시각은 주체문예사상을 전제한 것이어서 남한의 일반 연구시각과 다른 것이다. 따라서 고산의 자연서정에 결합된 현실적 서정에 대한 견해에서도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하여 북과 남의 접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곧 자연서정의 국면에 관한 한 남북의 견해가 서로 동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앞 장의 서두에서 이미 지적했다.

그리고 북한의 시각이 남쪽의 견해 중에 현실지향적 시각과도 일단 서로 비슷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고산이 '사회정치적 주제의 작품은 많이

41) 정민 교수는 고산시조의 작품과 더불어 인용고사를 대상으로 하여 자연과 현실의 대립성과 비대립성의 모순된 이중성을 논의했고, 정운채 교수는 방대한 작가론을 바탕삼아 고산시조의 현실의식을 일반적인 연군지정에서 찾으면서도 고산 시가만의 독특한 특징을 찾고자 한다. 고산은 다른 사대부와 달리 연군지정을 여성적인 목소리가 아닌 남성적인 혹은 이념적인 목소리로 빚어내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정민, 어부사시사의 갈등상, 고전문학 4집, 고전문학연구회, 1988, 185-186쪽 및 정운채, 앞의 책, 116, 122쪽 참조) 이러한 논의들도 고산의 자연서정이 현실적 지향과 결합된 것이라는 기본전제를 밀바탕에 깔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남기지 못 하였다.'고 하면서도, 그의 현실적 지향을 다음처럼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선도의 시는 단순한 음풍영월이 아니었다. 그는 자기가 생각하고 직접 체험한 생활을 심장으로부터 토로한 시인이였다. - <견회요>는 어떠한 시비와 탄압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자기가 옳다고 믿는 한길을 지켜 나갈 결의와 리이첨 일파를 규탄한 자기의 행동이 나라를 위한 옳은 행동이라는 자부심과 류베지에서 부모를 그리는 절절한 심정을 읊고 있다.<sup>42)</sup>

이처럼 북쪽의 고산시가에 대한 인식도 당대 정치현실에 깊숙이 개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산중신곡”은 ‘산중 속에 묻혀 깨끗이 살아가는 기쁨과 자기 신념을 표현하고’ 있으면서도, ‘임금의 은혜’를 노래하거나, 산중신곡의 일부인 오우가처럼 ‘인간의 고상한 사상적 지향’을 표현한 것이라 하여 그 현실적 성향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sup>43)</sup> 북쪽은 또한 “산중속 신곡”도 ‘오우가처럼 우의성이 강한 작품들’이거나 ‘당대 사회와 현실에 대한 시인의 태도와 입장이 밝혀져 있는 것’으로 설명한다.<sup>44)</sup> “여부사시사”도 ‘시의 전편을 통하여 은일사상을 강조하고’ 있지만, ‘당시 봉건통치자들의 극악한 반인민적 행위들을 좋게 보지 않고 그것을 멀리 하려고 한 지향과 관련되어 있다.’고 했다.<sup>45)</sup>

문제는 고산의 현실성에 대한 근본적인 연구시각에 있어서 서로 다른 데에 있다. 물론 연구시각이 다른 데서 현실성의 구체적인 해석도 사뭇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현실성에 대한 해석에서 남쪽의 모든 시각은 어디까지나 통치계층 내부 차원이라고 하는 범주 안에서 문제를 찾는 데에 놓여 있다. 말하자면 좌절적 강호가도의 배경을 명철보신이나 현자파세에서 찾고자 하는 최진원의 시각이 그러하다. 또한 천인합일을 지향하는 자연과 사회의 상호화

42) 김하명, 앞의 책, 143쪽 인용.

43) 김하명, 앞의 책, 145, 147쪽 참조.

44) 김하명, 앞의 책, 149, 150쪽 참조.

45) 김하명, 앞의 책, 155-156쪽 참조.

함에 줄곧 장애가 되는 것이 왕도정치를 반대하는 또 하나의 사회현상 곧 부정적 현실임을 지적한 시각도 어디까지나 중세기 봉건질서 안에서 있는 시각이 된다.<sup>46)</sup>

북의 고산 시가에 대한 해석은 통치계급적 범주에서 나아가 근본 또 다른 차원의 연구시각에서 이루어진다. 우리문학 일반의 해석에서와 마찬가지로 고산시조의 해석에서도 북은 예외없이 이른바 자주성, 창의성, 사상의식성에 토대한 인민성과 민족성을 중시하는 주체문예사상을 관철시키고 있다.<sup>47)</sup>

북쪽도 남쪽의 견해처럼 통치계급 내부의 정치현실에 대한 고산의 대응을 지적하기도 한다. 말하자면 북쪽도 “산중신곡”과 같은 것은 고산의 깨끗한 생활신조와 청렴한 성격을 반영하고 있으며 아첨과 위선이 횡행하는 당대 정치현실에 대한 울분과 은근한 비난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sup>48)</sup> 그러나 북의 현실적 이해는 다음과 같은 진술에서 보듯 통치계급 내부적 차원에서 더 나아가고 있다.

(견회요는 -필자) 나라를 위한 절절한 충정을 토로하고 있다. 시는 임향한 일편단심의 굳은 절개가 결코 변하지 않으리라 - (어부사시사와 오우가에서 -필자) 시인은 아주 예리한 관찰에 의해서 우리 나라 자연풍경의 정수를 포착해냈으며 비유, 반복, 대조, 반문 등의 시적 수사를 잘 구사하여 그 형상을 선명하고 생동하게 하였다. - 그는 시조시인으로서 누구보다도 조국의 자연을 섬세하고 아름답게 그려내였으며 시에 철학적 사색의 깊이를 주었다. 그는 정철처럼 인민의 입말을 시어의 기본으로 하였으나 그와는 다른 고유한 룰조를 창조하였다.<sup>49)</sup>

인용문은 “견회요”나 “어부사시사”, “오우가”的 성격을 설명한 것인데,

46) 성기옥, 앞의 논문, 215쪽 참조.

47) 북의 우리문학에 대한 주체문예론적 인식은 그 대장이 민족문학사연구소, 앞의 책, 17-63쪽에서 논의되었다.

48) 김하명, 위의 책, 149-151쪽 참조.

49) 김하명, 앞의 책, 144, 156, 157쪽 인용.

북쪽의 이러한 견해는 고산시가의 서정적 특징을 통치계급 수준이나 통치계급 내부적 차원에서 보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것은 곧 경국제민과 현자파세의 사대부 출처관이나 양반집단 내부의 당쟁과 같은 배경을 들어 고산의 시세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말하자면 인용문은 민족적 차원에서 고산시조를 설명하고 있다. 곧 '나라를 위한 절절한 충정'을 노래하고 '우리 나라 자연풍경의 정수를 포착'하여 '누구보다도 조국의 자연을 섬세하고 아름답게' 그려냈다고 한 구절들은 고산시가의 서정적 특성이 애국심이나 조국애에도 닿아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북쪽이 지적하는 이러한 민족적 서정은 남쪽의 고산연구사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북쪽 고유의 견해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북쪽에서 애국심이라고 하는 품성 혹은 자질은 그보다 더욱 상위차원의 개념인 '민족자주성'의 하위개념이면서 하나의 '민족적 특성'을 이루는 범주가 되는 것이다.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본성의 하나라 할 자주성의 영역에는 다양한 품성들의 하위범주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애국심은 가장 핵심적인 자주성이 된다.<sup>50)</sup> 애국적 민족자주성을 비롯하여 우리 민족의 다양한 민족적 특성들은 민족문화의 다양한 범주, 이를테면 민족적 도덕이나 심리, 그리고 민족적 미학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민족의 고유성과 독자성에 대한 인식을 가지게 한다.<sup>51)</sup> 고산시가에 반영된 애국심도 그러한 민족자주성에 다름 아닌

50) 다음 인용문은 애국심을 뜻하는 민족해방의 자주성이 지난 선행적 중요성을 선명히 표현하고 있다. '사람들은 누구를 물론하고 민족국가의 테두리 안에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제관계를 맺고 살며 활동한다. 민족을 떠난 계급이나 사람이란 생각할 수 없다. 민족해방의 과업은 계급해방의 과업에 선행한다.' 주체사상 총서 4권, 사회과학 출판사, 33-34쪽 인용.

51) 민족자주성, 민족적 특성, 그리고 민족미학적 특성의 개념에 대해서는 그 대강의 차원에서나마 북쪽의 다음과 같은 설명을 참조할 수 있다. '민족의 성원들이 다른 민족의 지배와 간섭을 반대하고 민족자주의식을 가져야 하며 자신의 힘으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개척해나갈 수 있는 창조적 능력을 지녀야 한다. - 민족문화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민족의 고유성과 독자성에 대한 인식을 가지게 한다. 민족의 풍습과 관습, 예식 등 민속적 독자성, 예의범절을 비롯한 도덕적 가치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데서의 민족적 특성, 현실과 사건들을 감정 정서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한편 남쪽의 시각에서 볼 때 남 향한 일편단심의 충정은 일반적으로 ‘봉건적’ 감정으로 읽히고 있다. 말하자면 그것은 봉건군주를 향한 그리움이거나 봉건계급 내부의 반대파에 대한 원망이 개입된 감정일 수가 있는 것이다.<sup>52)</sup> 이런 점에서 북쪽의 조국애와 관련한 해석은 지나친 과장이거나 극단적 해석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자연의 아름다움과 자연 속의 즐거움에서 애국심을 찾는 것도 남쪽의 시각으로 보면 추상적인 시각으로 비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고산시가에 대한 북의 민족자주적 이해는 그에 선행하여 우리 민족역사와 민족성을 관통하는 확고하고도 일반적인 하나의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데서 문제제기가 수월치 않다고 할 수 있다. 북쪽의 일반적인 민족역사관이며 민족관은 우리 민족의 줄기찬 불굴의 애국적 전통과 드높은 민족적 자존심을 철저히 확인 강조하는 데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sup>53)</sup> 민족사의 실제에 비추어 볼 때 북의 이러한 역사관과 민족관이 추상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므로 고산시가에 대한 애국적 해석도 적어도 일반론적 차원에서 그 논리적 근거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북의 그러한 일반론적 논리는 작가 고산에 대한 작가론적 해석이 뒷받침된 것이어서 상당한 구체성을 갖추고 있다.

알다시피 고산 당대는 임병란이라고 하는 미증유의 민족적 충격이 두 번이나 일어났고, 또한 악순환의 폐단이었던 당쟁은 국력을 쇠진케 하는

---

심리적 태도에서의 민족적 특성, 인간과 세계에 대한 미학적 반영에서의 민족적 특수성 등이 민족문화에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박승덕, 주체사상총서 8권(사회주의 문화건설이론), 사회과학출판사, 29쪽 참조.

52) 성기옥, 앞의 논문, 215쪽 참조.

53) ‘왜래침략자들은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우리 나라를 침공하였으나 한번도 우리 인민의 애국적 충성심과 용감성을 꺽지 못하였으며’라고 한 교사는, 고구려 ‘인민’들의 빛나는 민족자주성을 밝힌 것이다. 하지만 신라 박제상의 형상은 ‘예로부터 애국심이 강하고 민족적 지조가 굳은 조선민족의 성격적 특질’을 재현하였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는 민족자주성이 비록 고구려 인민에게서 가장 빛난 것이더라도 또한 고구려 ‘사람’들로 대표되는 ‘일반적인’ 민족성원들에게도 구현되는 민족적 특성을 말해 준다.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김하명, 앞의 책, 112-113, 126쪽 참조.

또 하나의 모순이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윤선도는 생명까지 버릴 정도의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애국자는 아니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는 민족적 정치적 양심을 끝까지 지킨 인물이기도 했다. 이를테면 접전에까지 이른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병자호란 당시 직접 의병을 모아 출정의 힘겨움을 감내하였고 또한 국권을 농락하는 이이첨 등의 정치모리배에 대한 단죄적 대응과 그로 인한 파직과 유배 등의 좌절을 맛보기도 한 데서 그의 애국적이고 정직한 자질이 분명하게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그의 올곧은 양심과 처신에 대해서는 남북 학계의 누구도 부정하지 않고 있다.<sup>54)</sup> 윤선도는 민족의식 일반이 누란의 위기를 통해서 더욱 각성되고 높아진 객관적인 환경을 경험하면서 개인으로서도 그에 상응하는 일정한 대응과 처신을 보여줬던 것이다.

따라서 고산시가의 현실지향적 정체의 구체적인 해명을 위해서는 작가 고산이 살았던 주객관적 조건까지 알아야 하는 것이다. 북쪽이 주장하는 고산시가의 민족성도 그런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는 셈이다. 곧 충군이나 연군의 사상 한 쪐에는 봉건사상 이외에 자주적인 조국애도 들어 있는 것이라 하겠다.<sup>55)</sup>

“어부사시사”와 “오우가” 등 고산시조 일반의 시적 소재라 할 자연풍경의 아름다움에서 민족자주적인 조국애를 주장하는 논리도 문제시 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인간사의 구체적 내막이 표현되지 않는 자연 그 자체는 추상성을 면치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적어도 거기에는 민족적인 소재나 정서가 좀 더 분명한 수준에서 갖춰질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애국심은 그 어떠한 추상적인 개념인 것이 아니라 자기 조국의 강토와 역사와 문화에 대한 끝없는 사랑이며 그것은 또한 자기 고향과 고향사람들에 대한 애착심’<sup>56)</sup>이라고 하는 교시의 통큰 범주에 따를 경우 고산의 아름다운 자연은 민족자주성의 선명한 표상이 되고도 남는다. 더구나 당대 사회

54) 최진원, 앞의 책, 34쪽 및 김하명, 앞의 책, 141쪽을 참조.

55) 북쪽도 고산시조 일반의 봉건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제한성으로 지적해 두고 있다. 김하명, 앞의 책, 157쪽 참조.

56) 정홍교, 조선문학사(원서-9세기), 사회과학출판사, 1991, 233쪽 참조.

가 누란의 민족적 위기를 맛보았던 시대라고 하는 작가론적 조건과, 아울러 그런 상황임에도 사대주의적 소재와 표현이 사대부 문예의 여전한 정통으로 행세하던 낡은 당대적 문예상식에 견주어 본다면 고산시조의 아름다운 자연의 한 켠에는 아름다운 조국이 한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는 것이다.

북의 고산시가에 대한 민족자주적 해석은 절절한 충정이나 우리 산수의 아름다움에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를테면 오우가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오우가는 자연물을 인격화 하여 시인의 자연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함께 '강한 정의감과 인도주의, 깊은 철학적 사색', 곧 정의를 향한 지조와 신의, 또 달처럼 광명을 베풀는 인간과 사회를 향한 인도주의적 정신세계를 표현한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sup>57)</sup> 북의 오우가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사회적이고 자주적인 존재로서 인간의 자주성 차원에서 내려진 것이라는 데서 그를 윤리적 규범 차원에서만 인식하는 남쪽의 경우와 사뭇 다른 것이다. 오우가의 정의감과 인도주의, 그리고 철학적 정신세계는 모두 자주적 인간의 중요한 품성을 이루는 영역들이 된다.<sup>58)</sup>

그러한 자주성은 또한 고산 개인의 자주성이면서 나아가 민족자주성의 한 영역이 되는 것이기도 하다. '재물이나 권력보다도 진리와 도덕을 더 존중히 여기는 것은 오랜 옛날부터 우리 인민이 계승하여 내려오고 있는 전통적인 아름다운 풍습이라' 할 경우,<sup>59)</sup> 오우가의 정신세계는 일차적으로 우리 인민의 보편적인 정신세계가 된다. 나아가 그것은 인민 혹은 인민적 특성이 민족 혹은 민족적 특성을 대변하는 것이라 할 경우, 그러한

57) 김하명, 앞의 책, 148쪽 참조.

58)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사회적 인간의 속성' 을 자주성이라 할 때(주체사상총서 1권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 사회과학출판사, 100쪽 인용), 우리 민족의 민족적 특성으로 나타난 자주적 품성의 범주에는 다양한 미덕들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근면성, 선량성, 정직성, 화목성, 낙천성을 비롯하여 신의와 절개, 의리와 지조, 지혜 등의 다양한 미덕들이 그것이다. 김하명, 앞의 책, 127-129쪽을 참조.

59) 정홍교, 조선문학사(원시-9세기), 사회과학출판사, 1991, 266쪽 참조.

인민적 자질은 바로 민족적 특성에 해당하는 미덕들일 수가 있는 것이다.<sup>60)</sup> 그런 미덕들은 곧 인민의 자주성이면서 민족 자주성의 한 영역을 이루는 셈이 된다.

북은 윤선도의 민족자주성을 시가의 형식에서도 다음과 같이 확인하고 있다.

되도록 고유조선어를 쓰고 있으며 그 말들은 세련되어 있다. 그리고 후기의 작품들에서는 대조와 반복에 의한 강조의 수법을 더욱 능숙하게 쓰고 있다. - <초연곡> 2수와 <파연곡> 2수는 왕에게 교훈을 주기 위하여 지은 노래인 듯 하다. 이 노래들은 유교교리에 기초한 교훈적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쉬운 고유조선어와 비유적 수법으로 서정의 진실성과 시형상의 깊이를 상당한 정도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윤선도의 창작적 개성이 뚜렷하며 이 시가 교훈시창작에서 새로운 경지의 개척으로 된다. - (어부사사는 본래의 어부가의 -필자) 작품의 주제사상에 기초하면서 그 시의 세계를 더 넓히고 구성과 표현을 일신하였으며 형식을 완전히 민족적인 것으로 개작하였다.<sup>61)</sup>

인용문은 고유조선어를 비롯하여 조선어에 토대한 비유와 대조 등의 세련된 시적 기교 등의 형식적 특징에서 민족적 특성을 지적하고 있다. 물론 남쪽도 고산시조의 형식이 갖는 뛰어난 지점을 일반적으로 지적한다. 이를테면, 홍취를 '극도로 세련되게 표현'하거나 진부한 고사나 설명을 내세우지 않고 '신선한 표현'의 영역을 개척하여 '감각이 뛰어난' 시조가 되게 했다는 인식이 그것이다.<sup>62)</sup> 이러한 인식은 고산의 형식적 지향이 봉건 사대부계층 일반의 보수적 관점에서 사뭇 진보적 관점으로 옮겨 가

60) 인민대중의 역사적 문화적 지위에 대한 설명은, 주체사상총서 2권(주체사상의 사회역사적 원리), 사회과학출판사, 27쪽 및 정홍교, 조선문학사(고려시기문학), 사회과학출판사, 1994, 21쪽을 참조할 수 있고, 민족적 특성과 인민적 특성의 개념 및 상호관계는,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북한의 문예이론(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이론), 인동, 1989, 117쪽을 참조할 수 있다.

61) 김하명, 앞의 책, 144, 152, 153쪽 인용.

62) 조동일, 앞의 책, 296쪽 참조.

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그 진보성이란 구체적인 논의는 없더라도 당시로서는 ‘후대의 순수시’라 할만한 경지의 진보성이 된다. 고산의 형식적 지향이 적어도 반중화적 혹은 반사대적인 민족적 시가로 향하고 있음을 말한 것이라 하겠다.

다만 남쪽의 경우는 고산의 민족성을 표나게 드러내지는 않는다. 어쩌면 남쪽 관점은 애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에 비한다면 북쪽의 민족적 관점은 고산시조의 내용과 형식 일반에 걸쳐 포괄적이고 일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북쪽 입장에서 고산은 참으로 중요한 당대적 민족자주적 시인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북이 말하는 고산의 민족자주성은 일차적인 차원에서는 민족내부적 이념이라 할 계급계층적인 이념을 초월한 속성을 지닌 것이다. 그것은 국내적 수준의 지배와 피지배의 사회관계를 떠나서, ‘민족은 씨족, 종족을 이루고 살던 사람들이 자주성을 위한 투쟁을 하여 오는 역사적 과정에서 핏줄과 언어, 문화와 영토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결합된 공고한 사회적 집단이다’라고 할 때의 사회역사적 속성에 토대한 민족자주성을 뜻한다.<sup>63)</sup> 그리고 문학을 포함한 문화 일반의 고유한 민족적 특성도 그런 측면에서 규정된다. 곧 ‘문화의 공통성은 민족의 중요한 정표인 것이다. 민족문화는 고유한 민족적 형식을 가지게 되며 언어의 민족적 특성을 비롯한 문화의 민족적 형식으로 하여 매개 민족은 서로 구별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sup>64)</sup> 윤선도 시가문학이 표상한 고유조선이나 우국지정과 같은 범주는 범계급적인 민족자주성을 표현한 형식이요 내용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북의 이론에서 볼 때 민족자주성이라고 하여 계급성을 떠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계급성을 바탕으로 한 개념이 된다. 곧 ‘민족적 특성은 그 민족을 대표하는 근로인민대중의 민족적 성격과 민족적인 생활감정, 심리정서적 특징의 반영’으로 나타나며, ‘문학예술에 민족적 특성이 풍부히 구현되면 될수록 인민성은 그만큼 높아지는 것’이다.<sup>65)</sup> 여기서

63) 사회과학 출판사, 주체사상총서 2권(주체사상의 사회역사적 원리), 44쪽 참조.

64) 사회과학원 출판사, 주체사상총서 2권, 45쪽 참조.

65) 사회과학원문학연구소, 북한의 문예이론, 117쪽 참조.

인민의 개념을 일반적으로 ‘계급사회에서는 지배계급의 지배를 받는 근로 대중’이라 규정할 때,<sup>66)</sup> 민족적 특성이라 할 민족자주성은 인민의 민족자주성을 그 핵심으로 하는 개념이 된다. 다만 민족자주성에서 인민의 자주성은 그 핵심이기는 하되 그렇다고 하여 지배계급의 민족자주성까지 배척한 개념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민족자주성의 기본개념에서 그것은 ‘민족의 성원들이 다른 민족의 지배와 간섭을 반대’하는 민족자주의식인 데서<sup>67)</sup> 일단 사회관계를 초월한 범민족적 자주성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민족의 자주성과 인민의 자주성의 관계에서 보아 전자는 후자를 포괄하는 범민족적 범주이고 후자는 전자를 대표하는 범주가 된다 할 것이다. 그러니까 고산의 민족자주성은 인민적 민족성이라기 보다는 인민을 포함한 범계급적인 민족성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북쪽은 고산시조의 특징을, 봉건계급적 수준이나 봉건계급 내부적 차원이 아닌 민족자주성의 한 영역인 민족적 특성에서 찾고 있거나, 혹은 추상적인 민족자주성이 아닌 사회역사적 개념에 토대한 민족자주성에서 그를 확인함으로써 남쪽의 경우와 사뭇 다른 견해를 보인다고 하겠다.

고산시가가 민족적 특성을 띠고 있다고 할 때 거기에는 또한 어느 수준에서는 인민적 지향까지 보일 가능성이 나타난다. 북은 고산시가의 또 하나의 중요한 성향으로 아래에서 보듯 인민지향적인 성향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인민적 시각도 남쪽의 경우와는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조무요, 기세탄, 심야요는 -필자) 농사짓는 집의 부지런한 늙은이의 감정 세계를 짙게 풍기고 있다. – 농민적 감정이나 농민에 대한 동정이 훨씬 짙은 것을 느끼게 한다.<sup>68)</sup>

이는 “산중신곡”의 일부 노래들을 대상으로 지적한 것이지만 고산시가도 인민지향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남

66) 최동전, 조선말 사전, 과학원 출판사, 1990 참조.

67) 박승덕, 앞의 책, 29쪽 참조.

68) 김하명, 앞의 책, 146쪽 참조.

쪽의 경우 윤선도는 ‘예사 사대부로서는 바랄 수 없는 풍류를 마음껏 즐기면서, 정치 흥취 이치 세 가지 가운데 오직 흥취를 존중’하고, ‘살아가는 괴로움을 토로한다든가 하는 주제의식에서 벗어나 극도로 세련된 풍류의 세계를 미묘하게 표현하기만’ 한다.<sup>69)</sup> 또는 남쪽에서의 그는 ‘자연과 더불어 노니는 한가로움이 실제로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삶의 장으로 인식되는 자연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고 하겠다.<sup>70)</sup> 남쪽의 이러한 시각에 비하여 북의 고산에 대한 인민적 성향에 대한 해석은 사뭇 다른 것이라 할 수 있다.

북은 그의 인민적 내용의 배경을 인민적 체험에서 온 것이라 하여 다음과처럼 더욱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기도 하다.

그것은 보다 중요하게는 이러한 지향으로 하여 시인이 거의 전 생애를 농촌에서 지내면서 이렇게나 저렇게나 농민들과 접촉하고 농민들의 생활, 기분, 그 언어들을 비교적 잘 알게 되고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던 사정과 관련된다. – 자기가 일상적으로 직접 접촉하여 보고 느끼고 체험한 것을 노래하였기 때문에 시정이 진실하고 형상이 생동하게 되었다. 그것은 또한 윤선도가 이렇게 인민들과 비교적 가까이 사귀게 되면서 조선말의 시어적 가치를 옮겨 인식하게 되고 그것을 더욱 다듬고 세련시키는 데 자기의 창조적 노력을 기울인 것과 관련된다.<sup>71)</sup>

인용문은 그가 생애의 대부분을 보낸 해남 보길도의 생활을 비롯하여 귀양지 생활을 통해 현장 인민들의 생활을 직접 보고 들은 체험적 생활이 그의 인민적 성향의 배경이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최대한의 국어사용 및 우리 입말의 시어적 가치인식을 비롯한 그의 ‘새로운 사상예술적 탐구와 발견’이 기본적으로 인민들과 접촉하여 그들의 생활과 언어 등을 체험한 데서 이뤄진 것으로 보는 것이다. 북은 고산시조의 작품과 배경에 이르기까지 인민성의 관점에서 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남쪽의 경

69) 조동일, 앞의 책, 295-296쪽 참조.

70) 성기옥, 앞의 논문, 216쪽 참조.

71) 김하명, 앞의 책, 146-147, 156쪽 인용.

우와 다른 견해를 보인다고 하겠다.

또한 북은 우리문학 일반에서 처럼 고산시가에 대해서도 그 제한성을 언급하고 있다. 이 점도 남쪽의 경우와 다른 점이 된다. 고산의 제한성에 대한 지적은 아래 인용에서 보듯이 민족성 측면이 아닌 인민성의 측면에서 이루어진다.

(“산중신곡”의 ‘만홍’은 -필자) 산수간에 노니는 이 재미도 결국은 ‘임금의 은혜’일 줄 알겠으나 아무리 깊고저 해도 할 일이 없다는 것이 한스럽다는 역시 량반선비다운 넋두리를 하기도 하였다. - 그는 여전히 봉건통치계급의 우두머리인 왕에 대한 충의를 첫째 가는 도덕적 규범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렇게나 저렇게나 봉건제도의 공고화에 복무하였다. 이로 하여 이 시에서도 (“어부사시사”의 겨울 편 -필자) 당시 봉건사회에서의 첨예한 계급적 모순을 옳게 밝힐 수 없었으며 어민들의 지향을 진실하게 반영할 수 없었다.<sup>72)</sup>

이처럼 고산의 인민성은 인민지향의 현실적 속성을 지닌 것임에도 그와 동시에 사대부 일반의 봉건적 규범을 밑바탕으로 하여 이뤄진 제한성을 지닌 것이다. 그의 이러한 사상적 문학적 제한성은 만년에까지 봉건적 유교교리의 충실햄 신봉자로 살았던 고산답게 자신의 ‘시 세계를 아주 협소하게 제약하였으며 그의 시로 하여금 인민의 노래로 될 수 없게 하였다.’고 하겠다.<sup>73)</sup> 고산을 비롯하여 문학 일반에 대한 북의 이러한 제한성 논의는 사회역사관이나 문학사관이 철저히 인민성에 토대한 합법칙적 발전론에 입각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 할 것이다.<sup>74)</sup> 윤선도의 사상과 계급이 어디까지나 봉건 성리학과 양반계급에 토대한 이상 그의 삶과 문학에 제한성이 나올 것임을 필연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주체문예사상의 기본시

72) 김하명, 앞의 책, 145, 156쪽 참조.

73) 김하명, 앞의 책, 157쪽 참조.

74) 주체적 합법칙론에 대해서는, 우리문학의 첫 장을 서술하고 있는 정홍교, 조선문학사(원시-9세기), 머리말 3쪽에 밝혀져 있다. 이밖에 사회과학출판사, 주체사상총서 4권(반제반봉건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이론), 27-28쪽 및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이론, 인동, 1989, 151쪽을 참조하면 된다.

각이라 하겠다.

#### 4. 맷음말

윤선도 시조문학의 연구사를 대상으로 그 동질적인 견해와 이질적 견해, 그리고 그에 대한 북한 쪽의 연구까지를 포괄하여 논의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사적 견해의 다양성과 달리 모든 견해들에는 서로 일치되는 합의 점이 나타난다. 곧 고산시조 일반이 대개 자연과 자연 속의 삶을 대상으로 하여 그 아름다운 서정을 노래하고 있으며 형식 면에서 최대한의 우리말 사용과 세련된 표현의 미덕을 지닌다는 점이 그것이다. 모든 견해들이 아름다운 형식으로 자연서정을 예찬한 이른바 자연시인의 모습이 고산시조의 일차적 전제조건임을 합의하고 있는 셈이다.

그의 시조가 지닌 서정성의 본질에 대한 이질적 견해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고산시조의 서정을 현실이 전혀 개입되지 않는 순수한 자연서정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이러한 견해는 주로 고산시조를 작품론 자체로만 다루거나 혹은 조선조 강호시가사에서 그가 지닌 변별성에 비중을 두고자 한 접근방법에서 나온 것이다. 이러한 견해들에 따르자면 고산시가의 주제적 지향은 서정적 주인공 혹은 시인 자신이 정치현실을 중심으로 하는 번거로운 현실세계를 벗어나 강호자연 속에 살면서 자연과 생활의 여유로운 즐거움을 누리고자 하는 데에 있다고 하겠다. 이 때 서정의 형상화에서 보이는 우리말 사용 및 세련된 시적 표현은 고산시가의 돋보이는 형식적 특징이 되고 있다.

고산시조의 서정을 순수로 보는 대신에 현실적 속성을 띤 자연서정으로 보고자 하는 이질적 견해를 들어 볼 수가 있다. 이런 견해들은 남한 내부에도 일정한 쟁점을 보이는데, 특히 남북 간에는 서로의 연구시각 차

이로 인해서 사뭇 다른 쟁점을 보인다.

남쪽의 경우 고산시가의 현실성의 배경을 대개 당파싸움 같은 통치층 내부의 갈등에서 찾고 있다. 그래서 그의 자연서정의 본질 속에는 현실적 좌절이나 방황의 정서가 배어 있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

다만 그의 강호서정의 세부적 본질에 대한 해석에서 일정한 차이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 하나는 고산시조의 자연서정의 범위 안에 좌절적 정서 이외에 좌절을 관념 속에서나마 풀어버린 정서가 들어 있음을 지적한 견해이다. 또 하나는 고산의 좌절적 서정은 일시적으로 풀 수는 있어도 영원히 풀어지지 않는 정서라고 하는 주장이다.

이 둘의 견해 차이는 작가 고산의 삶과 문학이 지향하는 인식틀의 본질에 대한 해석 차이에서 야기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좌절적 성향을 뿐다고 보는 쪽에서는 고산이 좌절을 초극하기 위한 삶의 장치를 현존의 사회윤리적 규범의 실현에 있다고 인식하면서도 현실에서는 그를 구현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신 강호자연에 투사된 규범을 통해서 좌절을 풀어버리는 것으로 논의한다. 그 해당 작품들은 고산시조 중 “오우가” 여섯 편들이다. 그런데 이 풀어진 좌절이 현실적인 것이 아닌 자연 속에 투영된 관념적 규범을 통해 이뤄진다는 데서 관념적 수준의 좌절이라 할 수 있으나, 견해의 기본방향이 풀어진 쪽에 기울어 있다고 하겠다.

좌절을 영원히 풀지 못한다고 보는 쪽에서는 고산의 좌절에 대한 돌파구의 정체를 다른 차원에서 찾고자 한다. 이런 입장은 고산의 인식틀의 본질이 현실적 규범 뿐만 아니라 현존 자연에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는 데에서 있다. 곧 그의 인식틀은 나와 자연, 그리고 사회를 비롯한 일체의 인문현상과 자연현상까지를 포괄하는 훨씬 높은 차원의 세계라는 것이다. 이른바 유가의 우주적 천인합일의 원리가 그것이다. 말하자면 이 우주적 원리는 현존하는 현실에도 자연에도 구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산의 서정적 지향은 일시적으로 좌절을 푸는 듯 해 보여도 본질상 영원히 풀지 못 한 채 갈구와 방황의 굴레에 갇힌 폐쇄적 서정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강호서정의 폐쇄성은 오우가 뿐만 아니라 고산시조 일반에 두

루 관철되는 속성이 된다.

북쪽도 고산의 인식에 대하여 남쪽의 경우처럼 고산시가의 바탕을 강호서정과 그 시적 형식의 뛰어남에서 찾고 있음에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고산의 강호서정이 순수가 아니라 거기에는 이러한 현실지향적인 정서가 개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자 하는 시각은 남쪽 학계의 현실지향적 관점에 유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현실지향적인 측면에서 당대 통치계급 내부의 부정적 정치현실에 대한 울분이나 그에 대한 의식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남북의 인식이 대동소이하다.

하지만 북은 주체문예사상에 입각하여 고산을 해석하기 때문에 현실지향적 해석 차원에서도 남쪽의 경우와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인다고 하겠다.

첫째, 북은 남에 비해 고산시가의 특징으로 민족적 특성 혹은 민족자주성이라 할 민족성을 일관되게 서술 강조하는 차이점을 보인다. 북의 민족자주적 시각은 고산시가의 내용과 형식에서 동시에 적용된다.

곧 북은 고산시가에 대하여 나라를 위한 절절한 충정과 우리 나라 자연풍경의 정수를 포착하여 누구보다도 조국의 자연을 섬세하고 아름답게 그려냈다고 하여 민족자주성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 평가한다. 또한 오우가의 윤리적 규범에 대해서도 봉건적 유가적 규범으로 해석하는 대신에 윤선도 개인을 포함한 우리 민족 일반의 보편적이고 고유한 미덕으로 설명한다. 심지어 유교적 충군사상이라 할 일편단심의 마음까지도 민족의 안위를 걱정하는 우국지정, 곧 민족자주성의 범주로 보기도 한다.

고산시가의 민족성에 대해서 남쪽에서도 지적은 하고 있다. 그것은 그의 강호가도에서 현실지향적 정서보다는 순수지향적 정서에 비중을 둔 해석에서 나타난다. 말하자면 고산의 시조를 오늘날의 순수시의 경지에 이른다고 해석 평가하는 견해가 그것으로 이는 그의 작품이 적어도 중화적인 사대적 시풍에서 상당히 멀어진 것이라는 인식에서 나온 견해이다. 형식에서도 우리말 사용과 세련된 시적 표현을 빛나는 순수의 미덕으로 평가하는데, 이러한 관점도 사대적 보수적 문풍을 염두에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북쪽의 민족성 특히 민족자주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회역사적인 이론에 토대한 과학적 개념이자, 또한 문학예술의 초기일관한 해석과 평가의 잣대로서의 개념으로 적용된 것이라서 남쪽의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개념과 다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작품론을 고산 당대의 사회역사적 환경이라고 하는 객관적 조건과 고산 개인의 주관적 조건에 철저히 결부하여 진행함으로써 고산시조의 민족자주성을 해석해내고 있는 것이다. 고산시가라고 하는 구체적 대상에 그것을 적용하는 수준에서도 북이 민족자주성을 전면화하고 있음에 비해 남은 그러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을뿐더러 전면화하지도 않는 차이점을 보인다. 이른바 범계급적 차원에서 고산시조의 민족자주성을 밝혀내고 있는 것이다.

북은 그와 동시에 또한 인민성을 매우 강조하는 차이점도 보인다. 남쪽의 경우 고산시가의 인민성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다. 북의 인민성에 가까운 영역들, 이를테면 서정적 주인공이 지향하는 강호어부적 삶이 남쪽 학계에서는 대개 생활현장과 무관한 사대부계급의 처사적 삶으로만 보고자 한다.

북은 삶의 현장에서 가난하고 힘들어 하는 농민이나 어부의 감정과 그들에 대한 깊은 동정을 담고 있음을 고산시가의 중요한 한 특징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한 조선고유어의 입말 사용 및 세련된 시적 표현과 같은 형식적 미덕들에도 인민성이 반영된 것이라 한다. 이를테면 북은 고산시가의 내용적 형식적 미덕의 밑바탕이 탈정치적 공간인 해남이나 보길도에서 접촉한 인민적 체험에서 많이 영향받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고산시조의 작품과 배경에 이르기까지 인민적 관점으로 그를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셈이다.

북은 또한 고산시가의 제한성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의 경우와 다르다. 이러한 제한성 논의는 인민성에 토대한 합법칙적 발전론에 토대한 북쪽의 문학사관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사대부양반이라고 하는 고산의 사상적 계급적 한계가 그대로 작품의 제한성으로 노출된다고 보는 것이다. 곧 고산시가의 충군사상이나 어부적 삶은 민족적 성향과 인민적 성향을 떤 것이면서도 사상적 계급적 한계로 인해 봉건양반적인 경향을

띤 것으로 규정되는 것이다.

이 글은 고산시조에 대한 연구사의 다양한 견해를 일일이 다 검토하지는 못 했고, 특히 고산시조와 관련한 북쪽의 민족자주성과 인민성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는 지면 사정상 자세히 다루질 못 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풀지 못 한 문제들은 다음 기회의 과제로 남기면서 글을 마치기로 한다.

참고 문헌